

다산포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복원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독자에게 던지는 주된 질문은 필자가 보기에 ‘신이 없어도 도덕은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그 팽팽한 소설적 긴장은 사생아인 막내 스메르자코프가 ‘신이 없고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둘째 아들 이반의 말을 ‘부친을 살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한다. 내내 불안하던 이반은 죄의식에 불들리고, 받아들 드미트리가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강제노역형에 처해진 후애야 카라마조프가(家) 비극의 대장정은 막을 내린다.

이 소설에서 각별히 다가왔던 사건은 셋째 아들 알료샤의 사부, 수도사 조시마

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생전에 성자로 추앙받던 조시마 장로가 죽자 원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한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시신이 썩으면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은 위선자였을지 모르다며 웅성거린다.

이런 반전은 물론 대중의 무지와 일부 수도사들의 질투가 불러온 것이지만, 작가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조차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무신론자일지 모른다고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증거를 통해 찾는 한, 신은 이미 거기에 없다.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보며 신을 조롱했던 이반에게도, 그리고 시신의 때이른 부패를 보고 조시마의 신앙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는 같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해진 도킨스와 공격적 인본주의자 히친스가 한 편이 돼서 주도했던 ‘신무신론’ 논쟁도 기본 맥락과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괴테는 “사고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은 알 수 있는 것을 탐구하되 알 수 없는 것을 조용히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섰지만 실제로 말(馬)의 기수는 이성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이성(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에 의해 부러지는 도구적 이성으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다.

급기야 ‘사회는 없고, 있는 것은 개인 뿐’이라는 호언이 하나의 지배적 담론이 되고, 우리는 어느새 실존할 수 없는 일체의 것들을 무의미한 환상으로 내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령 가장 그럴듯한 교훈을 늘어놓는 지식인들도 막상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스스로 말문을 걸어 잠근다. 삶이 말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계개념의 소멸, 공동체의 붕괴가 우리의 정신과 삶 어디서나 맞닥뜨리는 현실이 된다는 벌써 돼 되었다.

켄 로치가 감독한 ‘인부들’(The Navigators)은 민영화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철도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다룬 영화다. 영국 대처 수상 이후의 세기말적 우울이 전면에 흐르는 가운데, 영화는 시장논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점차 신자유주의의 공모자로 만들어 가는지 그려낸다.

어떻게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 곧 자존심, 활기찬 유머, 동료애,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공동체를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잔인할 정도로 담담히 보여준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동료의 죽음마저 외면하는 주인공들에게 죄의식이 주는 반성적 사유가 들어설 여지는 없다. 피해자마저 가해자로 몰고와 가해자의 죄의식을 제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해악일지 모른다. 어느새 가해의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잡으면서 영화는 끝난다.

콜롬비아대학의 앤드루 텔랑코 교수는 ‘진정한 미국의 꿈 : 희망에 관한 명상’이란 절박한 저서에서 고통과 쾌락, 욕망과 두려움의 일상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영원히 멜랑콜리에 갇히기 쉽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희망은 눈앞의 잡사에서 벗어나 상징적인 구조물, 곧 내러티브를 만들어 갈 때에만 찾아질 수 있다. 그 내러티브가 광범위하게 공감될 때 우리는 문화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삼스럽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면서, 우린 어떤 내러티브를 공유하는지 낯뜨겁게 자문해 본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체제가 길들인 우리의 뻔뻔한 내면에도 레비나스가 말한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들어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社 說

전남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전남이 미래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매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2200여 곳의 발전소 가운데 절반 가량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입 인프라가 크게 빈약한 탓이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은 국내 생산량의 32%, 풍력은 60%, 조류는 99%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긴 일조시간 등 최적의 입지 조건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2185곳, 풍력 9곳, 소수력 17곳, 매립지가스 4곳, 조류와 폐기물 각 3곳, 바이오가스 2곳 등 7개 분야에 2223곳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동 중인 곳은 1254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가동률이 낮은 것은 송전선이나 변전소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민간 투자업체의 지속적이지 못한 투자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된 전력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재생에너지가 변전소를 통해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력 낭비가 뒤따르고 지역 발전과는 관계없는 시설 설치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90% 이상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생산된 전력을 곧바로 쓰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전력 생산이 도내 한전 변전소 45곳 주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변전소 용량이 부족해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업체의 신규 투자도 시들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인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민간업체의 투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부실 대학에 불이익, 학생 피해는 없어야

전남 지역 대학 중 3개교가 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돼 각종 예산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5 학년도 전국 지원 제한 대학 19개교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광양 한려대와 광양보건대학, 순천 제일대학 등 3곳이 명단에 올랐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과 경영부실 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돼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응시 대학의 재정지원 및 대출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내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 의료 분야 등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대학으로서 역할을 상실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대학의 내실화 내지 퇴출이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구조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사실 국내 대학은 지난 1990년 241개교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이미 포화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실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경쟁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구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해당 3개 대학도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장학기금 조성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대학 의료 분야 등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대학으로서 역할을 상실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NGO 칼럼

광주고려인마을 주민들은 독립유공자 후손



이 천 영
광주새날학교 교장·(사)고려인마을 이사장

필자는 최근 수년간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권리 찾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회 공청회 3차례, 서울광장 집회 1회 등을 열고 “고려인은 우리의 소중한 핏줄이자 독립유공자 후손이기”에 정당한 대우를 하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식인들은 ‘고려인 모두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아니며, 폭정과 수난을 피해 이주한 피난민에 불과하다’며 고려인 동포의 눈물어린 고난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은 국제결혼이 주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조국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아픔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체류자격 미비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고려인도 상당수다.

그러나 1910년 후반 10만명이 넘는 연

해주 고려인 사회는 한반도와 잇닿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연해주를 기반으로 독립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특히 1918년 일본군이 러시아혁명에 간섭하며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7만 대군을 파병하자 연해주 고려인들은 러시아군과 손잡고 일본군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군에 맞서 연해주 곳곳에서 고려인 무장독립군부대가 생겨났다. 한창길 부대, 최호립 부대, 혈성단, 독립단 부대, 솔밭관 부대 등 최대 36개 부대 4000여명의 고려인 독립군은 연해주 곳곳에서 5년 동안 일본군과 치열한 무장 투쟁을 벌였다. 또 용감한 전투, 탈레테렌스크 전투, 볼로차예프 전투 등에서는 러시아군과 연합해 일본군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한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해주 10만 고려인 사회의 적극적인 군자금 지원과 각종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출병 없는 독립전쟁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고려인 동포들은 ‘나라를 되찾는데 목숨을 바치라’며 소중한 남편과 아들들을 내놓으며 격려했다. 그 후 대다수 가정과 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어 주검마저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연해주 고려인 항일무장투쟁의 장엄한 역

사는 해방 이후 남북이 나뉘지면서 남쪽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지워졌고 북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무장투쟁이 강조되면서 사라졌다.

요즘, 지난 몇 주에 걸쳐 KBS 1TV의 ‘KBS 파노라마’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3부작 ‘카레이스키 150’을 방영했다. 1편 ‘디아스포라-이산’에서는 고종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중러일 전쟁 와중에 러시아로 탈출한 김인수의 후손이라는 러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100년 가까이 간직한 김인수의 사진과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인수는 러시아군 대령으로 전선을 누비며 러시아 황제로부터 최고 훈장까지 받았다.

또 이날 방송에는 100년 전 러시아와 독일군의 폴란드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 포로가 된 고려인들의 이야기도 처음 공개됐다. 2편 ‘레지스탕스-항전’은 연해주 고려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3편 ‘오디세이-가나긴 여정’은 러시아공영방송 RTR 영어인 고려인 5세 마리아 김의 시각에서 강제이주 이후 지금까지의 고려인 역사를 조명했다. 마리아 김이 한반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유일한 한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고려인 2세 노병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평양과 서울을 차례로 찾아 분단된 할아버지의 나라에 한없는 아픔을 느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잊은 고려인동포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은 이와 같이 역사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다. 이래도 국내정치 고려인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부는 고려인동포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이에 민족적 고난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오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정부지원도 없고, 관심이 없고,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아주지 않지만 황무지를 개척했던 조상들의 피를 이어왔기에 조상의 땅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 한다”며 공동체를 형성한 후 자활을 꾸꾸고 있다. 또 오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 당일에는 고려인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조촐한 마을 잔치를 월곡동 한남어린이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란단.

민중, 인권,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시민은 우리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광주에서나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영예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기 고

언제까지 아이들 탓만 할 것인가



전 상 훈
첨단교 교장

언제는 학교 선생노릇이 편했을까마는, 시대 조류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교육대상인 아이들의 특성 또한 예전 같지 않다보니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 와중에서 교권의 추락과 맞물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가고, 급기야 이래저래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다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급증하고 있음은 공교육의 위기의 한 단면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한가롭게 회고에 젖어 예전 같은 군사부일체나 들먹이며 선생님들의 교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존경을 강요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저런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부 못된 학생이나 분별 없는 학부모들로부터 건네지는 인격모독적인 폭언·욕설을 감내해야 하고 심지어는 수업진행까지 방해받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접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권회복 문제야말로 오늘의 학교 교육을 살리는 제일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국에서 교권과 관련한 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 놓는다 한들, 법적·제도적 규율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르는 힘들다. 그동안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데다 미봉책에 그치고 말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교권, 좁은 의미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

보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교육소요자와 공급자 간의 깊게 파인 불신의 골을 그대로 두고서, 무조건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당위적 목소리만 높여봤자 그것은 한낱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한 것이다.

교권회복이 교육의 신뢰회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를 탓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다. 이를테면 세상이 변한 만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질서에 대한 인식도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종래의 수직적 상하관계만을 고집하며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부모처럼 대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부모처럼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둘 사이의 관계도 지극히친 메마르거나 살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교사와 학생 간 눈높이를 맞추라고 할 때, 그 눈높이 조절의 키(key)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수-학습활동의 수준을 고

려하여 수업전략을 세우는 일이 그러하고, 생활지도에서 학생들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일이 또 그러하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듯이, 교사가 공부를 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몇 배 더 힘이 들어야 하고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살펴서 바로 아는 일 또한 몇 십배의 노력과 애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의 위기가 들먹여질 때마다 비뚤어진 세상을 욕하고 잘못 자란 아이들 탓이나 하며, 가르치기 힘들다는 핑계를 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노릇을 다했다 할 수는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해법을 찾아야지, 안되는 이유만을 들먹인다면 그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진심은 통한다 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아이들 심성 또한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마음을 내어 제 자식처럼 학생들 하나하나를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성심을 다해 가르쳐 준다면 학교는 다시 사랑과 감사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6년 콘셉트 카로 ‘쏘울(soul)’을 공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SUV의 스타일에 미니밴의 다목적성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한 일명 크로스 오버 차량(CUV,Crossover Utility Vehicle) 개념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이후 30개월동안 19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2008년 9월 광주공장에서 첫 양산에 들어갔다.
쏘울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국내 자동차 역사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

기아차 쏘울

쏘울은 기아차의 텃밭포인트가 될 것이다”는 슈라이어의 말처럼 쏘울은 기아차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디자인영역의 결정체가 됐다. 지난 7월 ‘2014 IDEA 디자인상’ 수상을 마지막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 의전차량으로 쏘울을 선택해 또 한번 화제가 됐다. 교황의 차인 일명 ‘포프모빌’은 그동안 벤츠와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만 차지했다. 포프모빌 선정으로 쏘울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마차박물관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쏘울의 이런 영광이 반가운 이유는 전량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탓이다. 쏘울은 광주 수출의 효자품목으로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93만 대 가량이 생산돼 밀리언 셀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생산량의 90%가 수출되고 수출량의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으로 간다. 지난 4월부터는 광주공장 에서 쏘울 전기차까지 생산해 기아차 최초의 전기차종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기아차가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광주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라도 멕시코 공장에 생산물량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기아차는 아직 멕시코 공장 생산 차종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쏘울만큼 ‘메이드 인 광주’로 영원히 남았으면 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